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색채에 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이 영 규 · 최 중 갑 *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텍스트에서 색채(color)는 단순히 특정 사물이나 인물의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와 연결되어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조이스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감옥 문과도 같은, 소리와 형상과 색채로부터 우리가 이해하게 된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천천히 겹손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내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술”(P 207)이라고 자신의 미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조이스는 소리, 형태, 색채와 같은 감각을 통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조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색채는 단순히 감각

* 이영규(제1저자), 최종갑(교신저자)

을 통해 지각되는 그 이상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나타난 색채에 대한 중요성은 『율리시스』(*Ulysses*)를 집필할 때, 조이스가 스튜어트 길버트(Stuart Gilbert)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요(schema)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길버트의 개요는 각 에피소드의 제목(title)과 서술기법(technic)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개요의 여러 카테고리들 중에 한 부분에는 색채가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텔레마코스」(“Telemachus”)에서는 흰색(white)과 금색(gold), 「네스토르」(“Nestor”)에서는 갈색(brown), 「프로테우스」(“Proteus”)에서는 초록색(green), 「칼립소」(“Calypso”)에서는 오렌지색(orange), 「하데스」(“Hades”)에서는 흰색과 검은색(black), 「아이올로스」(“Aeolus”)에서는 빨간색(red), 「나우시카」(“Nausicaa”)에서는 회색(grey)과 파란색(blue), 「태양신의 황소」(“Oxen of the Sun”)에서는 흰색으로 되어 있다(30).

조이스가 색채를 단순히 사물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상징으로 사용했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율리시스』의 「텔레마코스」에서 헤인즈(Haines)가 스티븐에게 담배를 권하기 위해 담뱃갑을 꺼내는 장면이다. 표면적으로는 친구들끼리 담배를 나누는 매우 평범한 장면으로 보인다. 여기서 조이스는 초록색과 은빛색을 대조시킨다. “헤인즈는 멈춰서서 반짝이는 초록색 돌이 들어있는 부드러운 은빛색 담뱃갑을 꺼냈다”(U 1.615-16)라는 구절에 대해서 샘 슬로우트(Sam Slote)는 “에메랄드 섬, 아일랜드는 초록색 보석이고, 잉글랜드는 은빛 상자이다. 셰익스피어가 『리처드 2세』에서 잉글랜드를 가리켜 ‘은빛 바다에 둘러싸인 이 소중한 보석’이라 부른 구절(2막 1장, 46행)에서 나온 표현”(Slote et al. 28)이라고 설명한다. 영국이 “바다의 지배자”(U 1.574)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은빛은 영국을 상징하며, 초록빛은 전통적으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이와 같은 색채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영국인 헤인즈가 토착 아일랜드인 스티븐에게 담배를 권하는 장면은 단순히 초록색 돌이 박힌 은빛색의 담뱃갑에 대한 서술을 넘어, 영국 제국주의의 권력 아래 놓인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스』의 각 에피소드에서 흰색, 금색, 갈색, 초록색, 오렌지색, 검은색, 빨간색, 회색, 파란색 등 아홉 가지 색채를 계획했다. 이러한 색채들은 그의 초기작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도 이미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부터 색채를 주제와 연관된 상징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했고, 이를 『율리시스』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의 집필 목적을 아일랜드의 “도덕사의 한 부분을 쓰려는 것이며, 그 배경으로 더블린을 선택한 이유는 이 도시가 마비의 중심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LII 134)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조이스는 더블린에 만연한 마비(paralysis)를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색채를 상징적으로 사용한다.

조이스 텍스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색채에 대해 부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색채의 상징성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쉬 위통(Yotong Xie)은 「색채를 은유로－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검정”과 “초록”의 사용에 관한 연구」(*Color as Metaphor—A Study of Joyce’s Use of “Black” and “Green”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검은색과 초록색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검은색을 로마 가톨릭의 악함, 정치적 부패, 아일랜드 사회의 쇠퇴, 자유 추구의 은유 등으로, 초록색은 아일랜드 교육의 부패, 도덕적 쇠락, 아일랜드의 희망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장 텐이(Zhang Tian-yi), 지아 샤오윈(Jia Xiao-yun)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색채 상징에 대하여」(*On the Symbolism of Color in Dubliners*)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흰색, 회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을 분석하면서 흰색을 순수함, 회색을 마비된 현재 상태, 파란색을 인간 환상의 또 다른 세계로 해석한다.

한편, 최근 코퍼스(corpus)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O’Halloran 232). 말하기와 쓰기에 사용된 언어들의 표본을 모아놓은 코퍼스는 많은 양의 언어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해당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퍼스 분석에 사용하는 콘코던스(concordance)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분석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언어 분석이 가능해졌다(Römer 82). 일반적으로 코퍼스는 원어민 화자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비원어민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습득할 수 없었던 언어 항목과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하도록 도와주므로 대부분 언어교육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작가의 문체 분석이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특성 파악을 위한 어휘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iber 16).

정량적 방법을 통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할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장점 중 하나는 해당 작가의 문체적 특성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 속 특정 어휘들의 출현 빈도를 숫자로 확인하고,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 중에서 해당 작품의 주요 내용 및 분위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어(keywords)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콘코던스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단어 혹은 핵심어가 포함된 문장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텍스트 분석의 용이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은 텍스트의 길이가 긴 작품이나 작품 간 특성 등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그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코퍼스를 이용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 연구와 관련하여, 먼저, 오할로란(O'Halloran)은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에블린」(“Eveline”)에 대한 코퍼스 기반 문체 분석(stylistic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 Monoconc Pro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작품에 등장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잠재의식적인 암시(subconscious intimations)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즈말(Ajmal)과 아프사(Afsar)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말(speech)과 생각(thought)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체 기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더블린 사람들』의 각 에피소드에서 약 2,000 단어를 발췌하였고 AntConc 콘코던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장인물들의 말과 사고 표현의 범주 간 상호 작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문학 연구가 해석적 방법의 영역이었고, 문학 고유의 분석들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콘코던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코퍼스 분석 기법과 그 고유의 문학 분석들이 함께 사용되어 문학 텍스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텍스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의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코퍼스 분석 절차와 그 결과를 다루고 3장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5가지 색채를 분석한다.

II. 코퍼스 분석 절차 및 결과

1. 분석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색의 상징성을 살펴보기 위해 콘코던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 AntConc(3.5.9 Window version)을 이용하였다. 로런스 앤서니(Laurence Anthony)가 만든 AntConc의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 워드 리스트(word list), 키워드 리스트(keyword list), 콘코던스, 연어(collocates) 검색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길이 및 종류의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다. 텍스트에 출현하는 어휘의 빈도 수와 관련하여, 워드 리스트 기능은 분석 대상인 목표 코퍼스(target corpus)에 가장 많이 사용된 어휘를 빈도 수에 따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반면, 키워드 리스트 기능은 일반적인 참조 코퍼스(reference corpus)에 비해 목표 코퍼스에 상당히 더 많이 또는 덜 자주 나타나는 특정 단어, 즉 핵심어를 빈도 수에 따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더블린 사람들』 속 15개의 에피소드를 분석하기 위해 AntConc의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인 『더블린 사람들』과 일반적인 영어 텍스트를 비교하여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사용한 색과 관련된 특정 어휘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어휘들이 가지

고 있는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므로, 단순한 어휘 빈도수를 알 수 있는 워드 리스트 기능이 아닌 핵심어 추출을 위한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사용하였다. 일반 영어 텍스트를 대변하는 참조 코퍼스는 The British National Corpus(BNC)¹⁾를 사용하였다. BNC는 영국 영어의 구어 및 문어를 모두 담고 있는 방대하고 널리 알려진 코퍼스로, 언어학 연구 및 기타 응용 분야의 참조 코퍼스로 자주 사용된다.

텍스트 분석 절차와 관련하여, 먼저, 분석 대상 코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http://www.gutenberg.org>)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txt)로 변환한 후 AntConc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BNC 텍스트 파일도 참조 코퍼스 항목에 추가 입력하였다. 다음 <표 1>은 워드 리스트 기능과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통해 분석한 각 에피소드별 타입(type)과 토큰(token)에 대한 결과값이다. 타입은 텍스트에 나오는 서로 다른 어형(distinct words)을 의미하고, 토큰은 텍스트 안에 나온 모든 단어의 수를 지칭하며 반복된 단어 수도 포함한다. 표를 통해, 단순 출현 어휘의 수와 핵심어 출현 어휘의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더블린 사람들』 에피소드 별 단순 출현 어휘 및
핵심어의 타입과 토큰 결과

	Word(frequency)		Keyword(keyness)	
	Types	Tokens	Types	Tokens
The Sisters	890	3168	212	2351
An Encounter	976	3282	224	2393
Araby	822	2367	159	1596
Eveline	624	1842	219	1437
After the Race	855	2257	239	1641
Two Gallants	1132	3984	249	2947
The Boarding House	932	2851	170	1955
A Little Cloud	1359	5061	300	3800
Counterparts	1091	4202	282	3215
Clay	718	2685	184	2028

1) <http://www.natcorp.ox.ac.uk/>

A Painful Case	1230	3668	221	2484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1206	5483	315	4410
A Mother	1177	4606	264	3527
Grace	1763	7743	420	6144
The Dead	2702	16000	564	13031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사용된 색채 대한 특정 어휘들을 찾아 그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각 에피소드 별 핵심어 목록에서 색을 나타내는 어휘들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더블린 사람들』의 15개 에피소드 속에 나타나는 어휘 중 AntConc의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통해 얻은 색채에 대한 핵심어 빈도 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더블린 사람들』 에피소드 별 색채 관련 핵심어 빈도 수

	black	grey	green	brown	white	blue	red	
The Sisters	3	3	·	·	·	·	·	6
An Encounter	·	3	5	·	·	·	·	8
Araby	·	·	·	3	·	·	·	3
Eveline	2	·	·	2	2	·	·	6
After the Race	·	2	·	·	·	3	·	5
Two Gallants	3	4	4	·	5	4	·	20
The Boarding House	·	·	·	·	5	·	·	5
A Little Cloud	·	·	·	·	4	·	·	4
Counterparts	·	·	·	·	·	·	·	0
Clay	·	·	·	·	·	·	·	0
A Painful Case	3	·	·		5	·	·	8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6	·	·	·	·	4	·	10
A Mother	·	·	·	3	·	·	·	3

Grace	.	.	.	.	.	.	4	4
The Dead	5	4	4	9	7	.	7	36
Total	22	16	13	17	28	11	11	118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더블린 사람들』의 15개의 에피소드에 주요 어휘로서 등장한 색에 대한 단어는 검은색, 회색, 초록색, 갈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총 일곱 개다. 그중 흰색이 총 28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검은색과 갈색 그리고 회색이 비교적 많이 등장한 반면, 파란색과 빨간색은 각 11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 별로 살펴보았을 때,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일곱 개의 색에 대한 핵심어 출현 빈도 수가 총 36회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죽은 사람들」이 다른 단편들에 비해 긴 텍스트의 길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훨씬 많고 다양한 어휘가 쓰였음을 참고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건달」(“Two Gallants”)에서 갈색과 빨간색을 제외한 다섯 가지 색이 모두 등장하였고, 빈도 수 역시 20회로 「죽은 사람들」 에피소드 다음으로 높았다. 「애러비」(“Araby”), 「하숙집」(“The Boarding House”), 「작은 구름」(“A Little Cloud”), 「어머니」(“A Mother”), 「은총」(“Grace”)에서는 한 가지 색에 대한 어휘만 등장하였고, 「대응」(“Counterparts”)과 「진흙」(“Clay”)에는 핵심어로서 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핵심어로서 나타난 일곱 개의 색 중에서 가장 빈도 수가 적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색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AntConc 프로그램의 키워드 리스트 기능을 통해 알 수 있는 분석 자료는 핵심어의 종류 및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Keyness value), 그리고 효과 크기(Effect size)이다. 키니스 가치와 효과 크기 모두 키워드 분석 시, 목표 코퍼스와 참조 코퍼스에 나타난 단어의 빈도를 비교하여 코퍼스 내 유의미한 단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키니스 가치는 핵심어의 빈도가 참조 코퍼스와 비교하여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나타내는 반면, 효과 크기는 그 차이의 정도를 정량화하

여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표 3>부터 <표 7>까지는 각각의 색이 사용된 『더블린 사람들』의 에피소드 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및 효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높은 키니스 가치는 해당 단어가 참조 코퍼스보다 목표 코퍼스에서 훨씬 더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단어가 텍스트의 주요 핵심어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효과 크기 값이 클수록 목표 코퍼스와 참조 코퍼스 간의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 차이의 크기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에피소드 별 검은색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효과 크기 결과

	Frequency	Keyness value	Effect size
The Sisters	3	23.59	0.0019
Eveline	2	17.06	0.0022
Two Gallants	3	22.23	0.0015
A Painful Case	3	22.72	0.0016
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6	43.93	0.0022
The Dead	5	25.64	0.0006

검은색의 경우, 모두 6개의 에피소드에서 핵심어로 사용되었으며 「담쟁이날의 위원회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검은색의 키니스 가치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에피소드 별 회색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효과 크기 결과

	Frequency	Keyness value	Effect size
The Sisters	3	23.59	0.0019
An Encounter	3	23.38	0.0018
After the Race	2	16.25	0.0018
Two Gallants	4	30.63	0.0020
The Dead	4	19.85	0.0005

회색은 5개의 에피소드에서 핵심어로 사용되었으며 「두 건달」에서 회색의 키니스 가치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높았다.

<표 5> 에피소드 별 초록색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효과 크기 결과

	Frequency	Keyness value	Effect size
An Encounter	5	41.05	0.0030
Two Gallants	4	30.63	0.0020
The Dead	4	19.85	0.0005

3개의 에피소드에서 핵심어로 사용된 초록색은 「마주침」(“An Encounter”)에서 키니스 가치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높았다.

<표 6> 에피소드 별 갈색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효과 크기 결과

	Frequency	Keyness value	Effect size
Araby	3	25.32	0.0025
Eveline	2	17.06	0.0022
A Mother	3	21.38	0.0013
The Dead	9	49.32	0.0011

갈색은 4개의 에피소드에서 핵심어로 사용되었으며 「죽은 사람들」에서 갈색의 키니스 가치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에피소드 별 흰색 출현 빈도 수, 키니스 가치, 효과 크기 결과

	Frequency	Keyness value	Effect size
Eveline	2	17.06	0.0022
Two Gallants	5	39.14	0.0025
The Boarding House	5	42.44	0.0035
A Little Cloud	4	28.75	0.0016
A Painful Case	5	39.95	0.0027
The Dead	7	37.41	0.0009

흰색의 경우, 총 6개의 에피소드에서 핵심어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 「하

숙집』에서의 키니스 가치가 다른 에피소드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두 건달」과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에서 흰색의 키니스 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나는 흰색, 검은색, 갈색, 회색, 초록색 등 다섯 개의 색이 나타내는 의미를 각 단편에서 대표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색채의 상징성

1. 창백함과 무기력을 나타내는 흰색

『더블린 사람들』에서 흰색은 창백함과 무기력을 드러낸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단편은 「에블린」이다. 에블린(Eveline)은 남자 친구인 프랭크(Frank)와 함께 더블린을 떠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더블린에 남겨지게 될 동생 해리(Harry)와 아버지에게 두 통의 편지를 쓴다. 조이스는 이 장면을 “그녀 무릎 위에 놓인 편지 두 통의 흰색이 흐려져 갔다”(The white of two letters in her lap grew indistinct, D 39)²⁾라고 묘사를 한다. “편지 두 통의 흰색”은 흐려짐이 더해감으로써 더블린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은 에블린의 무기력한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에블린은 남자 친구인 프랭크와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죽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만 아니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았던 순간들을 회상한다. 에블린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이미 죽고 없는 어니스트(Ernest)지만 해리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한편, 아버지가 요즘 부쩍 늙어간다고 걱정하며 자신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쉬워할 것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자신이 아팠을 때 토스트를 만들어주던 것과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다 같이 소풍을 가서 자녀들을 즐

2) 원문 병기는 색채를 사용한 인용문에 한정하며, 색채는 이탤릭체로 강조하였다.

겁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이러한 기억은 프랭크와 더블린을 떠나기로 한 에블린을 주저하게 한다. 이는 에블린의 마음이 이미 무기력하고 창백해진 상태임을 나타낸다. 에블린이 남기고자 했던 편지의 흰색은 무기력한 그녀의 마음이다.

흰색의 편지가 에블린의 무기력을 상징한다면, 「에블린」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흰색은 실제로 하얗게 질려버린 에블린의 현재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에블린은 프랭크와 떠나기로 한 부두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멈추어 서버린다. 에블린은 자신을 계속 부르고 있는 프랭크를 보면서 “그녀는 무력한 짐승처럼 활기 없는 하얀 얼굴을 그에게 향했다”(She set her white face to him, passive, like a helpless animal, D 41)라고 묘사된다. 여기서 흰색은 ‘활기 없는’(passive), ‘무력한’(helpless)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면서 에블린의 무기력함을 드러낸다. 민태운은 「에블린」을 “마비의 주제를 등장인물에 가장 잘 구현시킨 이야기”(53)로 평가한다. 결국 더블린을 벗어나지 못한 에블린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을 답습”(61)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블린」에서의 흰색은 인물의 무기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하숙집」에서도 흰색은 인물의 창백한 무기력을 드러낸다. 「하숙집」의 주인공인 무니 부인(Mrs. Mooney)은 아버지의 작업 주임과 결혼한다. 그러나 무니 부인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술을 마시고 행패도 심해지는 남편인 무니(Mooney)와 결국 별거를 하고, 그로부터 양육권을 얻어낸 후, 그에게는 돈도 음식도 그리고 방도 주지 않는다. 그 결과 무니는 집행관 사무실에서 소송에 관련된 일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집달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 서술자는 무니를 “하얀 얼굴에 하얀 콧수염과 하얀 눈썹을 지닌 남루하고 구부정한 왜소한 주정뱅이”(a shabby stooped little drunkard with a white face and a white moustache and white eyebrow, D 61)라고 묘사한다. 무니의 외적인 묘사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흰색은 직접적으로는 그의 노쇠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더 이상 가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무니의 무기력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이 흰

색은 인물들의 무기력함을 다루는 상징적인 색채로 작동한다.

2. 권위와 통제를 나타내는 검은색

『더블린 사람들』에서 검은색은 권위와 통제를 드러낸다. 「자매」(“The Sisters”)에서 이름 없는 화자인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 갔다가, 이웃집의 코터 영감(Old Cotter)을 만난다. 이 장면에서 화자는 “코터 영감은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나를 검사하는 그의 목주 알처럼 작고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가 느껴졌지만 나는 접시에서 얼굴을 들어 그를 만족시켜줄 생각이 없었다”(Old Cotter looked at me for a while. I felt that his little beady *black* eyes were examining me but I would not satisfy him by looking up from my plate, D 10)라고 서술한다. 이때 코터 영감이 화자를 응시하는 이유는, 화자가 고인이 된 플린 신부(Father Flynn)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터 영감의 이러한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 상태나 신부와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탐색 혹은 의심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코터 영감 눈동자의 색인 검은색은 화자인 ‘나’와 죽은 플린 신부 사이를 감시하는 통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코터 영감은 ‘나’와 플린 신부가 만나는 것이 탐탁지 않은 듯이 자기라면 자기의 아이가 플린과 가깝게 지내도록 하지 않겠다고 ‘나’의 삼촌에게 말한다. 「자매」에서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플린 신부에 대한 코터 영감의 감정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검은 눈동자’를 수식하는 형용사 ‘반짝거리는’(beady)은 일반적으로 경계심이나 불신을 유발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며, 동시에 ‘목주’(bead)를 연상시키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코터 영감의 ‘검은’ 눈동자는 가톨릭 교회의 억압적이고 감시적인 시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건달」에서 검은색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의상을 묘사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의 시선에 포획된 여성의 모습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사용된

다. 레너헌(Lenchan)은 콜리(Corley)와 동행하는 한 여성을 살핀다. 작품의 마지막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여성은 콜리와 레너헌이라는 남성들에 의해 돈을 빼앗기는 희생자가 된다. 레너헌이 바라보는 이 여성은 “그녀가 입은 파란색 셔지 천으로 된 치마의 허리에는 검은 가죽 벨트가 매여 있었다”(Her blue serge skirt was held at the waist by a belt of *black* leather, D 55)라고 묘사되어 있다. 옷을 묶는 벨트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벨트의 역할은 단순히 의상의 악세서리를 넘어서 가부장제의 사회에서 움썽달썽 못 하는 여성의 처지를 드러낸다. 여기에 벨트의 검은색은 남성의 시선이라는 권력과 감시의 상징적인 기능을 한다. 레너헌의 시선은 그녀의 몸을 의상의 색으로 분절하며 포획한다. “그녀는 자개 단추가 달린 짧은 검정색 재킷과 헤진 검정 목도리를 걸치고 있었다”(She wore a short *black* jacket with mother-of-pearl buttons and a ragged *black* boa, D 55). 레너헌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은 검은 가죽 벨트뿐만 아니라 검은 목도리에도 묶여 있다. 여기서 그녀가 달고 있는 ‘자개(mother-of-pearl)’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mother’라는 모성성이 결국 남성의 시선에서는 한낱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기능을 한다. 이 문장에서 두 번 사용되는 검은색은 가부장적인 질서의 권위와 통제를 상징한다.

「담쟁이 낚의 위원회실」에서 검은색 또한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옷의 색채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일랜드의 정치 지도자인 찰스 스튜어트 파넬(Charles Stewart Parnell)의 죽음 후 지리멸렬해진 더블린에서 가톨릭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 단편은 파넬이 사망한 후 11년 정도가 지난 1902년 10월 6일 즈음 시의회 의원에 출마한 티어니(Tierney)의 선거사무실을 배경으로 여러 인간 군상들을 다룬다. 파넬이 아일랜드 가톨릭 세력에 의해 몰락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단편에서 나오는 신부의 의상은 주목할 만하다. 키온 신부(Father Keon)의 의상을 묘사하면서 “그의 검은 옷은 그의 작달막한 체구에 꼭 조이는 단추가 채워져 있었다”(His *black* clothes were tightly buttoned on his short body, D 125) 라고 서술한다. 이 검은색 의상은 겉으로는 신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

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서술자는 굳이 “그가 성직자 복장을 한 것인지 평복을 한 것이 알 수 없었다”(D 125)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상징의 직접적인 일의성을 의도적으로 유보한다. 이는 키온 신부가 단순히 성직자로서의 직분에 따라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는 당위적 해석을 넘어서, 그가 가톨릭이라는 종교 제도 내에서 권력과 억압의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때 검은색은 그의 몸을 조이는 단추들과 결합하여 억압적 제도성을 내면화한 인물로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서술자는 이어서 “그는 검고 단단한 펠트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다”(He wore a round hat of hard *black* felt, D 125)라고 묘사함으로써 검은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키온 신부는 이 검은 모자를 통해 성직자로서의 권위를 드러낸다. 그의 외적인 모습은 성직자로 보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때로는 타락한 종교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으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톨릭 제도의 일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이중성은 종교적 권위가 퇴색되었음에도 제도적 위력은 유지되는, 더블린 사회의 마비를 보여준다.

3. 따분함과 수동성을 나타내는 갈색

『더블린 사람들』에서 갈색은 반복되는 일상의 따분함과 수동성을 나타낸다. 「애러비」는 소년의 낭만적인 사랑의 좌절을 다룬다. 첫 문단에서 “그 거리의 집들은, 내부의 단정한 삶을 의식하는 듯 갈색의 차분한 얼굴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다”(The houses of the street, conscious of decent lives within them, gaze at one another with *brown* imperturbable faces, D 29)라고 서술되는데, 여기서 집들을 마치 사람처럼 “갈색의 차분한 얼굴”로 묘사한 것은 ‘imperturbable’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쉽게 동요하지 않는, 차분한’이라는 의미와 맞물려 더블린 일상의 단조롭고 따분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갈색은 변화 없는 더블린의 현재 상황을 확장시켜 주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는 「에블린」의 주인공인 에블린이 더블린을

벗어나는 데 결국 실패하는 것처럼, 「애러비」의 이름 없는 화자인 ‘내’가 더블린의 반복적이고 희망 없는 정적인 상황에서 이웃집에 사는 친구 뎡건(Mangan)의 누나에 대한 짝사랑이 결국 실패할 것임을 암시한다. 화자가 “그녀의 갈색 윤곽을 내내 눈에서 놓치지 않았다”(I kept her brown figure always in my eyes, D 30)라고 표현한 데서 굳이 갈색을 선택한 것은, 소녀에 대한 환상과 억눌린 욕망이 결국 갈색으로 상징되는 단조롭고 따분한 일상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소년의 환상과 욕망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암시하며, 욕망의 대상을 갈색이라는 색채로 묘사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낸다. 뎡건 누이에 대한 낭만적인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 갔던 애러비에서 화자는 “허영에 휘둘리고 조롱당한 한 마리 짐승”(D 35)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애러비는 화자가 짝사랑하는 뎡건의 누나가 가고 싶은 바자회이면서, 화자에게는 ‘어떤 동양적인 마법’(D 32)을 거는 환상적 존재이지만 현실은 실망스러운 상업적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조이스는 갈색을 통해 더블린의 따분하고 변화가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어머니」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이 딸 캐슬린(Kathleen)을 음악회 피아노 연주자로 계약하지만, 결국 사건이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다룬다. 이 단편에서 갈색은 변화 없음의 권태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키어니 부인의 남편은 “덥수룩한 갈색 턱수염”(great brown beard, D 137)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그의 갈색 수염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키어니의 성격과 존재감을 상징한다. 키어니는 키어니 부인보다 “나이가 훨씬”(D 137) 많았고, 키어니 부인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키어니에 대해서 “낭만적인 사람보다 오래 살기에는 좋다”(D 137)고 판단한다. 「어머니」에서 키어니 부인의 남편은 수동적이다. 키어니 부인은 딸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자, 딸의 연주를 그만두게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를 남편에게 잡게 한다. 이 장면에서 키어니의 남편은 키어니에 종속된 듯 부인의 말에 즉시 따른다. 이 단편에서 키어니 부인은 결혼 전 이름인 데블린(Miss

Devlin)으로 명시되는 반면, 그의 이름은 직접 등장하지 않고 ‘그녀의 남편’으로만 서술된다. 이는 키어니 부인에 비하여 그의 역할의 수동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는 장치이다. 갈색이 상징하는 수동성은 비단 키어니 부인의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키어니 부인이 만나는 협회 사무국장인 피츠패트릭(Mr. Fitzpatrick) 또한 마찬가지이다. 키어니 부인은 피츠패트릭을 만나면서 “그녀는 그가 부드러운 갈색 모자를 되는데로 머리 한 쪽에 걸치고 있으며 억양이 단조롭다는 것을 알아차렸다”(She noticed that he wore his soft *brown* hat carelessly on the side of his head and that his accent was flat, D 139)고 묘사한다. 피츠패트릭은 “체구가 작고 하얗고 멍한 얼굴”(D 139)로 서술되며 그의 갈색 모자는 그가 일상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그는 이 음악회의 책임자였지만 결국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키어니 부인에게 “난 피츠패트릭 씨를 전혀 몰라요”(D 145)라고 사회적으로 지워지는 존재로 언급되기도 한다. 피츠패트릭의 갈색 모자는 그의 수동적이며 몰개성화 특징을 드러낸다. 이렇게 갈색은 더블린을 벗어나지 못할 듯한 일상의 따분함과 인물의 수동성을 드러낸다.

4. 모호함과 쇠락을 나타내는 회색

『더블린 사람들』에서 회색은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모호함과 쇠락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마주침」은 학교에서 서부 소설을 읽으면서 모험을 꿈꾸던 화자가 친구 마호니(Mahony)와 함께 허구의 세계가 아닌 실제의 모험을 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더블린 만에 있는 발전소인 ‘피전 하우스’(Pigeon House)를 가는 여정에서 이상한 늙은 남자(a queer old jossler)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다. 화자는 이 이상한 늙은 남자에 대하여 “콧수염이 잿빛 회색으로 꽤 나이 들어 보였다. 우리 발치를 지나며 그는 우리를 흘끗 쳐다보곤 계속 걸어갔다”(He seemed to be fairly old for his moustache was ashen-grey. When he passed at our feet he glanced up at

us quickly and then continued his way, D 24)라고 묘사한다. 이 남자를 묘사하면서 특별히 잿빛 회색을 사용한 것은 노화된 신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결국은 그 남자의 쇠락해버린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기서 잿빛 회색은 화자에게 있어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존재로써 인식하게 하는 색채로서의 역할을 한다. 화자인 ‘나’는 그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읽은 자신과 읽지 않은 마호니를 은연 중에 구분하며 “그 사내가 나를 마호니와 똑같은 바보로 보는 것이 않을까”(D 25) 하고 무의식 중에 그 사내와 자신을 같은 편으로 생각한다. 한편 그가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화자는 “소년과 애인에 대한 그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싫었다”(D 25)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화자는 그 남자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 남자의 잿빛 콧수염은 나이가 들었다는 쇠락한 외적인 묘사임과 동시에 어린 화자가 이 남자의 판단이 아직 모호하다는 상징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두 건달」에서도 회색은 쇠락의 상징으로 쓰인다. 이 단편의 첫 문장은 “8월의 회색 빛 따뜻한 저녁이 도시에 내려 앉았고, 여름의 기억을 닮은 부드럽고 따스한 공기가 거리에 감돌았다”(The grey warm evening of August had descended upon the city and a mild warm air, a memory of summer, circulated in the streets, D 49)라는 묘사로 시작된다. 아직은 남아 있는 이 도시의 따뜻함이 여름의 기억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시간도 공간도 쇠락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이후에 레너현과 콜리가 하녀를 착취하는 모습으로 이 도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마비되었는지를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조이스는 이어지는 바로 그 문단의 마지막에서 “모양과 빛깔을 쉼 없이 바꾸면서도, 따뜻한 회색 저녁 하늘로 변함없는, 끊임없는 웅성거림을 내보냈다”(changing shape and hue unceasingly, sent up into the warm grey evening air an unchanging unceasing murmur, D 49)로 다시 한번 “회색 저녁 하늘”을 되풀이한다. 이는 “모양과 빛깔의 쉼 없는” 변화의 활발함과 생명력도 결국 모호한 회색으로 융합되며 쇠락함을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5. 아일랜드를 드러내는 초록색

『더블린 사람들』에서 초록색은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식민지 아일랜드의 현실을 보여주는 색이기 때문에 생명과 희망의 상징임과 동시에 처연한 아일랜드의 현실을 환기시키기도 한다. 「마주침」에서 ‘나’는 친구인 마호니(Mahony), 리오 딜런(Leo Dillon)과 함께 피전 하우스를 갈 약속을 한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며 보는 풍경을 “산책길에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의 가지는 모두 작은 연초록빛 이파리들로 경쾌했고, 햇살이 그 사이로 비스듬히 물 위에 내려 비치고 있었다”(All the branches of the tall trees which lined the mall were gay with little light green leaves and the sunlight slanted through them on the water, D 21-22)라고 묘사한다. “초록빛”은 이파리와 햇살, 물과 연결되어 그 자체로 생명과 젊음을 느끼게 하면서, 이제 막 모험을 떠나려는 소년들의 생기를 상징한다. 또한 이 문장의 서술은 나무와 물과 햇살이 반짝이는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처음의 초록빛은 생명과 젊음, 환희의 상징처럼 사용되지만, 결국 시간이 늦고 피곤하여 피전 하우스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운 뒤의 초록색은 생명과 환희보다는 어려운 일상을 견디어야 하는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나’와 마호니는 “나는 소녀들이 점을 친다는 초록색 풀줄기들을 씹으면서”(as I chewed one of those green stems on which girls tell fortunes, D 14) 둑 위에 누워 시간을 보낸다. 여기서 초록색은 풀줄기와 결합하여 나른하고 지루함을 드러낸다. 처음 모험을 떠날 때의 흥분은 사라지고, 권태로운 일상이 되어 버린다. 그 직후에 ‘나’와 마호니는 이상한 늙은 남자를 만나고, 그는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마호니의 “저 변태 영감 같으니”(D 26) 라는 대사를 통해 무언가 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 그가 오자 마호니가 고양이를 쫓아 자리를 떠남으로써 ‘나’와 둘만 남게 된다. 이때 화자인 ‘나’는 그 남자를 처

다본다. “내가 그렇게 하자, 경련하듯 꿈틀거리는 이마 아래에서 나를 응시하는 짙고 어두운 초록색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As I did so I met the gaze of a pair of bottle-green eyes peering at me from under a twitching forehead, *D* 27). 남자의 눈동자 색깔을 묘사하는 짙고 어두운 초록색은 권태와 나른함을 넘어서 불길함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초록은 진녹색으로 변질되며, 모험 초기의 신선함은 이제 불안과 타락으로 변해버린다. 초록색이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역할을 한다면 아일랜드는 초기의 활력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불안함과 마비가 가득한 곳으로 되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 단편으로 수록된 「죽은 사람들」에서도 초록색은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의 매력에 대해 재생산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면서 특히 “더블린의 편협성과 환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Letters II 164)고 평가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서는 가브리엘의 연설을 통해 “저는 해가 거듭될수록 환대의 전통만큼 영광스러운 전통은 없고 또 그것만큼 우리나라가 소중히 지켜야 할 전통은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D 202)라고 아일랜드의 환대 문화에 대하여 언급한다. 남기현은 아일랜드의 환대의 전통이 온정주의로 흐르는 단점이 있지만 사람들을 이어주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일랜드의 가톨릭 전통에서 발생한 교구제와 더불어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조이스가 인식한 아일랜드의 장점인 것은 분명”(남기현 131)하다고 평가한다. 「죽은 사람들」의 저녁 만찬은 이러한 환대의 분위기가 잘 드러난다. 서술자는 저녁 식사 메뉴에 대해서 “통통한 갈색 거위 ... 곱겹 질을 벗겨 빵가루를 뿌린 다음 깨끗한 종이주름 장식으로 정강이 주변을 둘러싼 커다란 햄 ... 빨간색과 노란색의 작은 성당 모형 젤리 ... 자줏빛 건포도 다발들과 껍질 벗긴 아몬드 ...”(D 196) 등으로 자세히 묘사한다. 이러한 서술은 독자 역시 그 만찬에 초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이 만찬 장면 중에서도 “줄기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초록색 잎 모양의 접시 한 개”(a large green leaf-shaped dish with a stalk-shaped handle, *D* 196)는 초록색을 아일랜드의 상징으로 보았을 때, 환대와 생명

력으로 가득한 아일랜드를 긍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의 많은 단편들 속에서 아일랜드의 부정적인 면들을 다루었다면 『죽은 사람들』에서는 아일랜드의 좋은 전통인 환대의 문화를 다루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아일랜드는 따스한 환대의 문화를 보여준다.

IV. 결론

『더블린 사람들』의 모든 단편에 사용된 색채를 분석하기 위해 AntConc 코코던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검은색, 회색, 초록색, 갈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텍스트 내 주요 핵심어로 드러났다. 이는 조이스가 스튜어트 길버트에게 제공한 『율리시스』의 개요에서 밝힌 색깔인 검은색, 회색, 초록색, 갈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금색, 오렌지색과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서부터 무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제와 연관된 상징으로서 색채를 사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조이스는 조국 아일랜드의 도덕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더블린 사람들』을 집필했다. 그가 본 아일랜드의 더블린은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대다수 아일랜드 국민의 종교인 가톨릭에 의한 종교적 억압과 가부장제 아래 마비된 상태였다. 조이스는 특정한 색채들을 사용할 때 단순히 사물과 상황 묘사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여러 단편에서 흰색은 창백함과 무기력함을, 검은색은 권위와 통제를, 갈색은 따분함과 수동성을, 회색은 모호함과 쇠락을, 그리고 초록색은 아일랜드를 상징한다. 조이스는 이처럼 다양한 색채의 상징적 활용을 통해, 종교와 가부장제, 제국주의에 의해 마비된 더블린의 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

인용문헌

- 남기현. 『『더블린 사람들』 다시 읽기』. 경진문화사, 2004.
- 민태운. 『『더블린 사람들』 또 다시 읽기』. 신아사, 2022.
- 전은경 외.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동인, 2005.
- Ajmal, M., and A. A. Afsar. “Corpus Stylistic Analysis of Speech and Thought Presentation in James Joyce’s *Dubli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vol. 10, no. 1, 2020, pp. 277-92.
- Anthony, L. *AntConc*. Version 3.5.9, Waseda University, 2024, www.laurenceanthony.net/software/AntConc.
- Biber, Douglas. “Corpus Linguistics and the Study of Literature: Back to the Future?” *Scientific Study of Literature*, vol. 1, no. 1, 2011, pp. 15-2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U of California P, 1982.
- ,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U of California P, 1988.
- Gilbert, Stuart. *James Joyce’s Ulysses: A Study*. Faber & Faber, 1930.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ited by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Viking Press, 1964.
- . *Dubliners*. Edited by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Viking Press, 1969.
- .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Stuart Gilbert, vol. I, Faber and Faber, 1957.
- . *Letters of James Joyce*. Edited by Richard Ellmann, vol. II, Viking Press, 1966.
- .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ited by Chester G. Anderson, Viking Press, 1968.
- .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ited by Hans Walter Gabler, Vintage,

1986.

- O'Halloran, Kieran. "The Subconscious in James Joyce's 'Eveline': a Corpus Stylistic Analysis That Chews on the 'Fish Hook'."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6, no 3, 2007, pp. 227-44.
- Römer, Ute. "Where the Computer Meets Language, Literature, and Pedagogy: Corpus Analysis in English Studies." *How Globalization Affects the Teaching of English: Studying Culture Through Texts*, edited by Andrea Gerbig and Anja Muller-Wood, E. Mellen Press, 2006, pp. 81-109.
- Slote, Sam, et al. *Annotations to James Joyce's Ulysses*. Oxford UP, 2024.
- Xie, Yutong. "Color as Metaphor—A Study of Joyce's Use of 'Black' and 'Green' in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vol. 5, no. 4, 2015, pp. 61-69.
- Zhang, Tian-yi, and Xiao-yun Jia. "On the Symbolism of Color in *Dubliners*." *US-China Foreign Language*, vol. 16, no. 6, June 2018, pp. 343-46.

Abstract

A Corpus-Based Analysis of Colors in James Joyce's *Dubliners*

Younggyu Lee · Jong-gab Choi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s and features of colors used in James Joyce's *Dubliners* with a corpus linguistic technique.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AntConc was employ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s used as keywords in *Dubliners*, and the frequencies, keyness values and effect sizes of different colors were calculated. In James Joyce's works, color serves not merely as a representational device for objects or characters but as a symbolic mechanism that reveals the pervasive paralysis afflicting Ireland. Throughout *Dubliners*, white connotes pallor and impotence, black signifies authority and control, brown suggests dullness and passivity, gray evokes ambiguity and decline, and green symbolizes the multifaceted identity of Ireland itself. Through his careful and symbolic deployment of color imagery, Joyce effectively portrays Dublin as a city immobilized by the intertwined forces of religion, patriarchy, and imperialism.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corpus analysis, colors, paralysis, keywords, Ireland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코퍼스 분석, 색채, 마비, 핵심어, 아일랜드)

논문접수: 2025년 5월 30일

논문심사: 2025년 5월 30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8일